
2016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선정 심의평

먼저 2016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모집에 응모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1차 서류심의에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총 806명이 응모해 주셔서 본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지난해 활동했던 멘토들의 재지원과 신규 지원자가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는데, 이러한 현상은 인생나눔교실에 대한 관심도가 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 여겨집니다. 지원자들의 프로필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서류심의에서는 총 369명의 2차 심의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.

멘토봉사단 선발 심의는 1차 서류심의와 2차 면접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.

심의는 서류에 기재된 지원자의 지원 동기, 사회 활동 경력 등을 보는 것 이외에도 사업취지 및 내용 이해도, 사업수행능력 및 열의, 기본소양 및 능력 등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.

또한 인생나눔교실은 기본적으로 '봉사'라는 큰 틀 아래 접근하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의 3가지 기본 심의기준 외에도 추가로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. 멘티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지, 현직에 종사하고 있어 활동시간이 자유롭지는 않은지, 멘티들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.

2차 심의는 사업 이해 정도, 멘토 활동에 대한 생각 및 접근 방식과 태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워크숍 면접으로 진행하였습니다. 멘토봉사단 신청자를 6모듬으로 구성하여 자기소개, 주어진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집단토론, 그리고 개인 발표의 과정을 65분 내외로 이어졌습니다. 각 권역별로 6명의 심의위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지원자들께서 가진 멘티에 대한 관점, 개인의 인생경험을 공유할 만한 경험가치로 정돈하여 표현하는 힘,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, 팀-티칭 형태의 멘토링을 이끌어가기 위한 유연성, 현장 변수에 대한 대응력 등을 가늠하고자 하였습니다.

전체적으로 지원자 개개인의 지역 활동과 경력들은 비교·평가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. 올해 멘토 지원자들의 삶의 자세와 밀도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더 치밀하고 강건하게 읽혔고, 멘티들로 하여금 인생 진로를 모색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

다만 한정된 예산과 시간, 멘티 현장과의 매칭 등의 한계로 지원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두 모시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차후 인생나눔교실이 더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 보다 많은 분들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

위와 같은 모든 심의과정을 거쳐 5개 권역별로 50분, 총 250명의 멘토가 최종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번 과정은 단지 선발을 위한 심사라기보다는 지원자들 서로가 멘토 선발이라는 경쟁 관계를 넘어 멘토가 될 동료관계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자리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더불어 인생나눔교실에 대한 숙련세대의 참여 의지와 열정, 2015년도의 성과와 멘토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. 너무도 이른 나이에 은퇴세대로 밀려나고 있는 노년세대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고, 다양한 삶의 경험이 세대 간 단절을 잇고 관계를 재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

모든 분들의 자질과 다양한 경험들이 감히 선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고, 인생나눔교실 사업에 참여한 좋은 의도가 탈락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에 임하는 심의위원들의 심기는 매우 무거웠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다시 한 번 지원자들께서 서류와 면접에서 보여주신 열정, 진정성, 포용력, 그리고 소중한 시간과 마음으로 선정과정에 함께해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2016. 5. 27.

2016 인생나눔교실 멘토 선정 심의위원 일동